

KIA 안치홍 “나도 기록의 사나이”

작년 고졸 신인 첫 올스타 이어 올 시즌 전경기 출장 눈앞 파워보다 정교함으로 타율 291·50타점... 2년차 징크스 넘어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안치홍이 전경기 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안치홍이 19일 LG와의 경기에서 3번타자로 선발 출장하면서 133경기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26일 한화와의 시즌 최종전에 나서면 전경기 출장을 달성하게 된다.

올 시즌에는 안치홍과 LG 조인성, 넥센 강정호 단 세 명의 선수만 전경기 출장중인 만큼 133경기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안치홍은 이제 겨우 프로에서 2년을 보낸 신예 선수지만 ‘기록의 사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고졸 신인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됐던 안치홍은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까지 거머쥔 것은 물

론 올스타전 최연소 홈런까지 쏘아올렸다. 14개의 한방으로 프로야구 역사상 4번째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10대이기도 하다.

파워보다는 정교함에 초점을 맞춘 올해, 안치홍은 ‘전경기 출장’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쓰고 있다.

지난해 안치홍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성장통을 겪었다. 초반 신인다운 패기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안치홍은 중반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프로에 높은 벽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체력적인 한계가 컸다.

안치홍은 올 시즌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꾸준히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안치홍의 이름을 팬들에게 각인시켰던 홈런은 줄었지만 대신 안정된 플레이로 2년차 징크스를 넘어섰다. 지난해 0.235의 타율과 함께 14개의 홈런, 8



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안치홍은 올 시즌에는 8개의 홈런을 때리는데 그쳤지만 0.291타율로 50타점, 79득점을 기록했다. 도루는 18개. 안치홍은 “고등학교때와 달리 매일같이

경기를 하는데다 원정 경기를 위해 여기저기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는 체계적인 안배를 하는데 신경을 썼다. 또 장타보다는 맞추는데 집중하는 플레이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무대를 누비며 화려한 가을을 보냈던 안치홍은 이번 가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안치홍은 26일 한화와의 최종전이 끝난 이후 왼쪽 어깨 연골 파열 봉합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고질적인 손바닥 통증을 안고 가야 할 속제가 됐다. 고등학교 시절 손바닥 뺨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안치홍은 왼손바닥이 좋지 않다. 올 시즌이 끝난 후 손바닥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밀 검진 결과 수술 후유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약물 치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대했던 태극마크는 가슴에 달지 못했지만 전경기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을 눈앞에 둔 2년차 ‘아기호랑이’ 안치홍, 더 큰 무대를 기약하며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다.

이치로, 미·일 통산 3,500안타 기록

미국 프로야구의 일본인 타자 스키 이치로(37)가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 통산 3천 500안타 고지에 올랐다.

이치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시애틀 세이프스필드에서 계속된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에서 1회 상대 투수 클리프 리에게서 미일 프로 통산 3천500번째 안타를 빼앗았다. 이치로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1278개의 안타를 때렸고,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2001년부터 이날 1회까지 2천222개를 작성했다. 이날 1회까지 이번 시즌 192개의 안타를 쳐 9년 연속 200안타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치로는 지난해 4월17일 재일교포 장훈



(70)이 보유했던 일본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 기록(3천85개)을 깼다.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안타는 피트 로스가 작성한 4천256개다. /연합뉴스

미 피츠버그 박찬호 2경기 연속 무실점

박찬호(37·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두 경기 연속 실점하지 않는 호투를 이어갔다.

박찬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중간 계투로 등판해 1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지난 16일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1¼이닝을 무실점으로 던진 박찬호는 3일 만인 이날

9-5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올랐다. 팀의 4번째 투수였다.

첫 타자 제라르도 파리를 투수 앞 번트로 속이낸 박찬호는 이어 라이언 로버츠에게 시속 129km짜리 느린 커브를 몸쪽에 던져 삼진으로 잡아냈다.

박찬호는 후속 왼손 타자 스티브 드루도 볼카운트 2-2에서 몸쪽으로 132km의 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박찬호는 11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6km까지 나왔다. 평균자책점은 5.03에서 4.94로 떨어졌으며 피츠버그가 9-6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인간새’ 하늘을 날다 폴란드의 라팔 슬리츠가 19일(한국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대륙컵 스키 점프대회에서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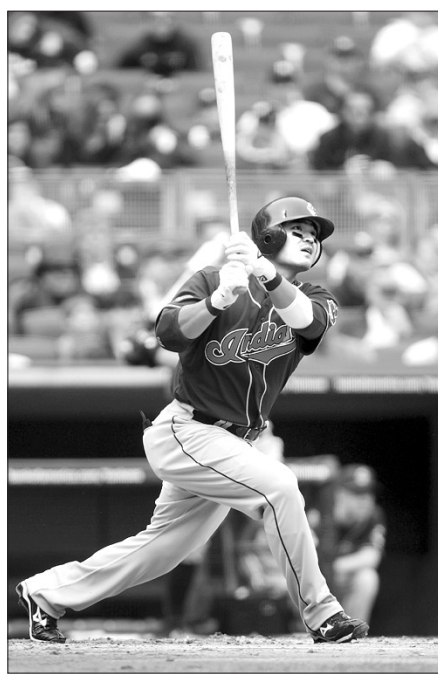


獨 베를린서 제1회 손기정 마라톤 대회

한일 병탄 100년을 맞아 고 손기정 선생이 1936년 올림픽 금메달을 딴 독일 베를린에서 제1회 손기정 베를린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2008년 템플호프 공원이 폐쇄된 후 시민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템플호프 파크에서 18일 열린 행사에서는 재독 동포와 현지인 등 200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수백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해 망국의 설움 속에 일장기를 달고 땀 수 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생의 뉘를 기리고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손기정 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 의원), 베를린 한인회(회장 김진복)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손기정 선생의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사진> 남자 성인 10km 단축 마라톤에서는 독일 거주 폴란드인 에드문트 크라마츠(41)씨가 31분38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원맨쇼, 클리블랜드 구했다

만루홈런 포함 대포 3발 7타점... 11-4 대승 이끌어

그랜드슬램을 포함해 한 경기에서 생애 첫 홈런 세방을 몰아친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팀 내 최고 타자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중인 추신수는 지난 18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 경기에서 홈런 3개 등 5타수 4안타로 7타점을 몰아담으며 클리블랜드의 11-4 대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한 경기에서 홈런 세 개를 몰아친 선수는 추신수를 포

함해 12명 뿐이다.

추신수는 경기 후 “내 생애 가장 잘한 경기였던 것 같다. 잘대 맞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에도 미국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경기에서 5차례 타석에 들어서서 3타수 2안타에 타점 1개를 몰리며 시즌 80타점 고지에 올랐다. 클리블랜드는 6-4로 이겼다.

클리블랜드 구단 홈페이지는 “추신수가

마치 구조대원처럼 ‘일당백’의 활약을 펼쳤다”고 극찬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148개 안타를 때리며 타율 0.294로 모두 팀 내 선두에서 있고 홈런(19개)과 타점(79개), 도루(18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팀 내 홈런 2위 제이슨 니스보다는 7개가 많고, 타점에서는 2위 트래비스 해프너보다 무려 36점이나 많아 찬스에 한 방 쳐주는 ‘해결사’로서의 명성도 쌓았다.

여기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노려볼 수 있게 돼 추신수의 주가는 점점 더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입생 공개 테스트로 선발 합니다

광주 광덕중 축구부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산하(U-15) 광덕중 학교 축구팀이 공개 테스트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테스트는 내달 9일 오후 3시 광덕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실시되며, 2010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골키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며 광주상무프로축구단 홈페이지(www.gwangjumsfc.co.kr)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FAX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재학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다. 문의전화 062-371-5225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909
광주CC
서미애
상기 회원증(대,소)을 분실공고함.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광(이하“광”)과 지원건설 주식회사(이하“지”)는 2010. 09. 17. 각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합병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광”은 “지”를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지”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회사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공고합니다.

2010년 09월 20일

“광” 주식회사 광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1-1, 2층 대표이사장 관동

“지” 지원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86-2 대표이사장 정철

어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온 겨레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만큼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 무인텔 필무인텔 임·직원 일동